

추석 명절 대축일

기도서 511면 (B해)

제1독서 : 요엘 2, 22-24, 26

제2독서 : 묵시 14, 13-16

복 음 : 루가 12, 5-21

숲 정 이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 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 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루가 12, 20).

강론

으뜸가는 부(富)

박인호 신부 / 임실주임

어떤 사람이 밭에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는데 어디에 쌓아둘 지를 몰랐다. 그리하여 그의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짓기로 생각하고는 이제 실컷 쉬고 즐길 수 있다고 혼자 중얼거린다. 많은 재산은 그로 하여금 몇 해 동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 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고 하셨다.

탐욕이란 지나친 소유욕, 항상 더 소유하려는 욕망이다. 예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하여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특히 부유한 자들을 주목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유하다고 해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富)로 인해 그들이 현실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실상 부자들은 물질적인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생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항상 자신의 신뢰심을 그들이 모아둔 재물들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부유한 자는 결국 이 땅에서의 참된 재산과 영원한 생명에 더 이상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어느 순간에 꺼져버릴 수 있는 것에 신뢰심을 두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부유하지 않을 지라도 소유와 독점으로 자신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경고하신다. 이들 역시 예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의 근본적인 선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꼭, 우리가 지닌 모든 애정에 앞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크고 작은 재산들에 앞서,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앞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앞서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하셔야 한다. 하느님이 우리 일생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 으뜸가는 부(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 드리게 된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시작한다면, 무질서한 모든 욕망과 탐욕이 우리 맘 속에서 깨끗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리

“화염병과 각목, 최루탄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얼마전 KBS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은 온 국토를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혈육을 찾은 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 그 프로를 진행하는 사회자... 모두 모두 너무나 많이 울어 눈덩이가 부어 오를 지경이었다. 혈육의 헤어짐이 그토록 큰 상처 였던가? 하는 생각이 새삼 떠오른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서럽게 하는가? 한 마디로 힘없고 돈없는 나라였기에 당해야 하는 설움이었다. 우리들 중 누가 남북이 갈라져 싸우기를 원하는가?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 어찌 이리 계속되는지...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오늘은 한가위 / 온 겨레가 햇과일 햇곡식으로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고 흠여졌던 온 가족이 조상들의 묘를 찾는 이 민족 최고의 명절이다. 두고온 고향산천, 헤어진 부모 형제가 더욱 그리운 날이다. 올림픽이라고 미국사람 소련사람 모두 와서 설치니, 죄도없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우리 신세가 더욱 서럽게 느껴진다.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공산주의가 무엇이라느냐? 한 형제 한 핏줄을 이토록 무참히 갈라놓고도 무슨 할말이 있다 더냐? 우리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원치 않는다. 미국이 좋더거나 소련이 싫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 남한 북한 가림없이, 영남 호남 가림없이, 온민족 하나되어 두리둥실 살다가 이 강도 떠나는 날 주님 나라 다시 만나, 영원 무궁 사는 것 - 이것만을 바란다. 내달 시월이면 올림픽도 끝나고 그 요란하던 성화도 꺼진다. 그러나 두고온 산천과 맥없이 헤어진 혈육을 만나고 싶은 열정은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이다.

· 힘없고 돈없어 갈라져야 했다면, 이제 올림픽을 치를 만큼 크나라, 부자나라 되었으니 다시 만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화염병과 각목, 최루탄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한 민족 한 겨레임을 잊지 말라 외치는 학생들에겐 고마운 마음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구나.

숲정이 산책



돌아가신분을 위하여...

“천주교회와 제사문제”

“천주교에서도 제사를 지냅니까?”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 하시겠습니까? 중국에서부터 제기된 이 문제는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혼란케 하였고, 아직까지도 많은 교우들이 그 혼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하여 현재 교회의 입장을 소개한다.

1. **문제의 제기** : 이 문제는 16세기 말엽부터 중국에 선교하던 예수회와 도미니코회 간의 '조상제사와 공자 공경의식'에 관한 각기 다른 견해로부터 시작됐다. '조상제사와 공자 공경의식'을 단순한 지방 문화와 풍속으로 보았던 예수회와 이를 미신적 '우상숭배'로 보았던 도미니코회, 그리고 상반된 보고에 정확한 결단을 내리기가 힘들었던 교황청간의 갈등이 100여년간이나 계속 되었다.

2. **제사의 금지** : 1645년 교황 인노첸시오 10세는 당시 도미니코 회원 모랄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중국의 의례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1656년 교황 알렉산델 7세는 많은 검토끝에 다시 허용하였으나 1715년 클레멘스 11세 교황에 의해 다시 금지된 것을 1742년 7월 11일 교황 베네딕도 14세는 이 칙서를 재천명하므로 1세기간의 파란만장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3. **제사의 허용** :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200년간 엄격히 규제되던 조상제사와 공자 존경의식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중의 제사에 대한 사고가 미신이나 우상숭배의 차원을 넘어서 순수한 효도의 수단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서방교회의 동양에 대한 의식 변화이다. 즉 기독교는 어떤 문화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각 지역에 맞는 문화에 접촉, 토착화 시켜야 된다는 점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1939년 12월 8일 교황 비오 12세는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에서 '시체나 죽은이의 상, 또는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 위패 앞에서 민간적 예모를 갖출 수 있다'고 허용하였다.

4. **제사에 따른 우리의 옳은 태도** : 이제 천주교인들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300년간을 고민해 왔는가를 주지해야 한다. 우리의 풍습과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 담긴 미신적이며 우상숭배적인 요인만은 걸러내야 된다. 제사는 허용한다. 그러나 미신이나 우상 숭배의 정신이 사라진 제사이어야 한다. 복빌기 위한 제사는 허용 할 수 없다.



성서와 함께

20. 성조시대의 역사(B) : 출애굽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사에 있어서 가장 깊은 흔적을 남겼던 종교체험이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에집트·바빌로니아·아시리아·가나안 등지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의 조상 하베루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 전까지 하베루인들은 노예나 용병으로서 여러 세기에 걸쳐 강대한 민족들 사이를 전전하면서 생존을 이어오던 천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일 뿐이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에집트의 고문서들을 참고하여 출애굽 사건을 조명할 수 없다. 사건 자체에 대해 직접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성서가 제공하는 연대기적 기록과 고대 문헌들에서 끌어낸 약간의 암시적 정보를 면밀하게 비교 연구한 결과 몇 가지 중대한 역사적 질문들에 답변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람세스 2세의 치적을 기록한 에집트 문헌에 의하면 하베루인들이 도시의 요새들을 건설하기 위해 벽돌 나르는 일에 강제로 징집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은 에집트에서 강제노역을 담당해야했던 성서의 히브리인들의 상황(출애 1,8-14;5,6-21)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준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의 연대를 람세스 2세의 통치시대인 기원전 13세기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집트를 빠져 나왔겠는가? 출애 12,37에 의하면 그 숫자가 어린이와 가족들을 포함한

여 60만 장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나이 사막이 그 십분의 일도 먹여살릴 수 있는 초원과 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소수의 단체가 에집트를 탈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껏해야 일이천 명 정도의 노예집단이었을 것이다.

셋째, 실제로 어떤 길을 통해서 에집트 탈출이 이루어졌는가? 출애 14장엔 두 가지로 이 사건을 설명한다. 21절엔 강한 동풍이 바다를 밀어 부쳐 이스라엘인들이 모래 위를 걸어가갈 수 있도록 했다고 되어 있고, 22절엔 보다 적극적으로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벽을 이루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다횡단을 도와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학자들은 이렇듯 홍해를 가로지르는 남쪽횡단로보다 북쪽횡단로를 더 근거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들은 히브리 원전의 갈대바다(출애 10,19; 15,4)가 홍해로 잘못 번역되었다고 보고(왜냐하면 홍해엔 갈대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북쪽의 스웨즈만 근처에 위치한 시르보니스 호수를 출애굽 사건의 무대로 설정한 것이다. 그곳에는 홍수로 자주 범람하지만 평상시 맨발로 건널 수 있는 얇은 늪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세가지 물음과 그에 대한 가설적 답변들은 출애굽 사건이 분명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요성은 역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오한 종교체험에 있다. 이 사건의 강조점은 야훼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행위에 최대한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각종사무기 종합취급점

복사기·팩시밀리·전자타자기·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기 및 사무기기 전문복 취급

(주) 신도리코 전주특약점

(주) 샤통리차

신도 O A 상사

오 중원 (이오스님) · 이 정운 (인젤라)

☎ 6-9666, 84-3678, FAX. 83-1836

동방지업사

모노롬·장판·도배전문

박 홍주(요셉)

조 옥금(아네)

전주시 태평동 1가35의 19
(전매청후문 상가 옆)

☎ 주 74-2714·야 6-9309

쌍거리슈퍼

식품·잡화일절

(PVC, 일미뉴그릇)

차도비아(희춘)

중노송동 2가 360-13

☎ 82-3643

교 구 소 식

전주교구 5위순교자 시복 시성을 위한 9월 기도와 미사

●일시: 9월21~30일 오전10시 30분 ●장소: 치명자산 루갈다묘역

- ※ 추석 성직자 위령미사: 25일(오늘) 오후5시 장소- 치명자산 성직자묘지
- 1. 정음지구 사목교서 연수회: 10월2일 오후4시 장소- 고창천주교회
- 2. 봉사자를 찾읍시다: 성지순례단 안내자로 봉사해 주실 남여 교우분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교구청 홍보국(85-0041-3)
- 3. 교구통신교리 개설에 따른 주부봉사자를 찾읍니다. 연락처 사목국(85-0041-3)
- 4. 9월중 은혜의 밤: 30일(금) 밤11시 장소- 전동성당 강사- 이인복교수(미사를 통한 치유) 고 마리아 자매(치유기도)
- 5.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지원자 모집: 뜨거운 선교 열의를 갖고 있는 젊은 여성 (연락처 614-021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78-6(051) 67-8237)
- 6. 한국외방선교회 10월성소모임: 주제-그리스도의 영성5-아버지의 일.일시-10월9일 오후2시~5시까지 대상-고교생 대학생 일반(미혼남성) 준비물-필기구 장소-서울 성북구 동선동5가 160 (02)923-1946, 5145
- 7. 근로여성 생활체험수기 작품모집: 대상-만18세 이상의 근로여성. 응모기간-9월15일~10월25일까지 소재-근로생활을 통해 얻게 된 생활체험.분량-200자 원고지 15매~30매 보낼것(문의처)-서울도봉구 미아4동 103 (02)984-1611~4 성바오로 딸 수도회 근로여성 생활체험수기모집 담당수녀(결봉에 기재 요망)
- ※ 축! 영명 성 빈첸시오(27일): 이병호신부님
- 성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29일): 박정일 주교님 안용기 김종길 박종상 범영배 박찬길 경규봉신부님 축하합니다.
- ※ 성소후원금에 감사!: 독일 마인츠교구신자들이 4,000\$ 을 미국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5,000\$ 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서 성인 천묘식 및 순교자 현양대회 ■

장소: 천호성지 주례: 박정일 주교.교구 사제단 공동집전
 일시: 10월1일(토) 오전10:30
 행사내용: 10시30분 유해봉송 행렬(천호공소), 11시 순교자 현양미사
 12시30분 성인유해 천묘식 (자가용 정차 제한)

잠깐!

아름다운 본당 공동체 ②

나눔=결단=사랑=기쁨

'高山'-글자 그대로 산이 높아 '고산'이다 전라도와 충청도가 만나는 험준한 산악지대였기에 박해를 피해 숨어 살기 좋았던지 20여개의 공소가 골짜기마다 박혀 있다. 따라서 이 본당은 농촌 본당이라기 보다는山村(산촌) 본당이라 해야 하리라. 샷갯배이 다령이는, 산전과 약초로 연명하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데 바로 이들이 셋트당 3만원, 4만원하는 도자기 예술품 이상을 사들였다. 주일 헌금 17만원 남짓한 본당에서 이차 헌금 특별헌금을 모으니 160여만원이 되었다. 산골짜에서 나무 지퍼 밥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수 만원짜리 도자기가 웬말이며, 100단위가 넘는 돈이 어이 된 일인가? 그들에게 도자기는 안중에도 없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성당을 짓는 전임 본당 신부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마음 뿐인 것이다. 어떤 할머니는 약초캐어 모은 50만원을 송두리채 바쳤다. 그들이 평화동 성당 신축을 위해 바친 돈은 그들이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꼭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것을 내놓은 것이다. 이처럼 나눔은 '결단'인 것이다.

자신을 쪼개는 '아픔'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픔'을 통해 '사랑'을 이해한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쪼개어 우리의 '밥'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듣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알렐루야-

요심이 (790) 김병오



직원채용모집

1. 모집부문
일반(사무) 직 여자 ○명
 2. 응시자격
만18세~25세 고등학교졸업자
 3. 제출서류
이력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4. 접수기간
1988. 9. 19~10. 8
- 문의처: 75-4371, 4372

술정이 신용협동조합

신창규치과의원

원장: 신 창규 (이오스님)
 이 연자 (모니카)
 위치: 인후아파트 2단지 앞
 ☎ 4-2232

중앙화장품백화점

(종합선물이 집)
 20~40% 할인
 *결혼세트 특별우대판매
 임 영자 (막달레나)
 중앙성당 정무원
 ☎ 4-0841

직원채용공고

간부직원: 남자 ○명
 (경력 5년 이상자)
 초급직원: ○명
 (상급생 주산 부기 3급 이상자)
 원서마감: 1988년 10월 8일
 연락처 (0658) 43-0881
 원평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서울직영 전주직매장
 허리방등가구전문

박 정근 (요셉)
 허 금순 (마리아)
 금암동 분수대옆 영진빌딩 1층
 ☎ 5-5365

현대미용학원

김 금순 (테레사)
 학생 수시모집
 피부관리사 양성
 전주중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 86-2211

☐삼례·익산지구 본당소식☐

*고산

사제관 73-4019 주임신부 **양경배**
수녀원 73-4110 사목회장 **고석재**

- 다음 주일은 사랑의 헌금 납부하는 날입니다.
- 28일은 전신자 신앙 교육하는 날입니다. 모두 참여하여 은총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7시-8시(교육) 8시-9시(영화상영) 9시-10시(미사)
- 다음주일은 군인주일입니다. 2차헌금 있습니다.
- 이명서 성인 천모식 및 순교자 현양대회 장소-천호성지 일시-10월1일 오전10:30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축! 고산성당 청년연합회 발족**
회장-이종철 부회장-이재승 총무-이승호 본당을 위해 열심히 뛰어봅시다.

☐지난주봉헌금: 176,140원 ☐교무금: 210,000원

*금마

사제관 53-7187 주임신부 **이덕근**
사무실 53-6244 사목회장 **김삼홍**
수녀원 53-7157

- ※성전정화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10월2일에 있습니다.
- 성모상 건립과 성전정화를 위해 신자분들의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 합니다.
창세기31,1-54 마르코복음3,1-35
 - 불우이웃 돕기 폐품수집 미사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모임: 성모회-공식미사후 청년회-10월2일로 9월달만 청년회 회합이 변경 되었습니다. 학생회-공식미사후
 - 미사안내: 9월25일 공식미사-10시30분 저녁미사-8시로 변경 되었습니다.
 - 가정방문일정: 27일-도천 28일-동촌리 29일-부동 30일-원촌 구정

☐지난주봉헌금: 222,440원 ☐교무금: 55,000원

*삼례

사제관 73-8469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9-2018 사목회장 **김을수**
수녀원 9-3196

- 풍성한 수확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 성모회 월례회: 밤 8시30분
- 군인주일: "다음주일" 국토방위에 수고하신 국군 장병을 기원 합니다. *2차헌금 있습니다.
- 로사리오 성월: (10월) 자비의 성모님께 평화를 간구합니다.
- 교무금 헌납주일: 88년도 3/4분기가 지나기 있습니다. 각자 납부 현황을 점검 합니다.
- 엔젤그라스에 힘을 모아주시분: 국화회50,000원 고형기30,000원 익명10,000원 이순덕5,000원 이승귀3,000원
- 금주전례: 특전-최자양 박유순 공식-권이준 임명순
차주전례: 특전-박종선 이인식 공식-김자선 이순자
제물봉헌: 금주-이창로 부부 차주-곽노섭 부부

☐지난주봉헌금: 395,110원 ☐교무금: 294,000원

*여산

사제관 53-5016 주임신부 **정천봉**
사무실 사목회장 **이삼영**

- 청년회: 공식미사후
- 추석합동위령미사 일정:
9.27: 성지공소 오전11시
9.28: 신라리 오전11시 황화정 오후2시
9.29: 마천오전11시 봉동 오후2시 두화 오후5시
- 사목회의: 27일 저녁미사후
- 구역장모임: 29일 오전11시
- 어머니 미사는 합동위령미사관계로 없습니다.
- 금주전례: 독서(1)이철수 (2)오영선 봉헌-인은성 배순희
차주전례: 독서(1)김기원 (2)강태영 봉헌-김귀현 송복금

*용안

사제관 6-2766 주임신부 **정태현**
사무실 사목회장 **서홍원**

- 추석명절 맞아 각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비읍니다.
- 영세자: 사진 찾아가시고 주민등록 등본과 증명사진 1장씩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추수감사미사: 내일10시30분 미사
- 대의원회: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사목회임원 구역 공소회장 필히 참석
- 반모임 조직: 구역 공소회장님은 반조직을 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전례: 해설-이성용 독서(1)송봉래 (2)박정희
봉헌-최호득 부부
차주전례: 해설-유용환 독서(1)김양수 (2)김명자
봉헌-임오희 부부

☐지난주봉헌금: 192,400원

*함열

사제관 6-0165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6-0065 사목회장 **김종대**
수녀원 6-1539

-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합동위령미사-공식미사중에
- 사목회 까리따스회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 성전보수공사에 협조하신분: 김경이, 최금란 각5천원 소계10,000 누계5,560,000
- 다음주일은 군인주일입니다: 군사목을 위한 2차헌금있음
- "축" 결혼 10월1일 12시
신랑-임양영 신부-정막달레나(순자)
- 금주전례: 해설-김광태 윤영미 독서(1)김정수 (2)최봉옥
차주전례: 해설-최영식 진선미 독서(1)김종대 (2)류향자

☐지난주봉헌금: 439,500원 ☐교무금: 246,500원

*화산

사제관 6-3671 주임신부 **김종길**
사무실 사목회장 **김상규**

- 오는 29일은 본당신부님 영명축일입니다. 축하식 저녁미사후 본당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추석합동위령미사: 10시30분 교회포지에서
- 독서대기중 삼양사료 김우식씨 감사합니다.
- 심신단체회합은 다음주일로 미룹니다.
- 금주전례: 첫미사-윤석일부부 공식미사-박종열부부
차주전례: 첫미사-김영주 김영자 공식미사-서백원부부

☐지난주봉헌금: 154,520원

*황등

사제관 52-2541 주임신부 **김순태**
사무실 사목회장 **장현순**
수녀원 52-7634

- ※오늘은 먼저가신 조상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 성지순례: 주님의 은총과 순례자들의 협조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 금주수요 공소방문: 신동공소
 - 10월성당 청소: 자비의 모후Pr(전단원의 협조가 아쉽습니다)
 - 교육관 의사 봉헌: 송예순3개 조백연5개 익명5개 누계64개
 - 년중봉헌금: 미납하신분은 속히 납부합니다.
 - 주일미사: 바쁘시더라도 권하지 않습니다.
 - 금주전례: 해설-김종규 독서(1)조백연 부부
봉헌-최봉순 김양남
차주전례: 해설-류용현 독서(1)장현순 부부
봉헌-백남석 부부

☐교무금: 211,760원

☐특별헌금: 이희봉3만원(가옥개축감사) 조백연5만원(동생고시 합격감사)